

『채털리부인의 사랑』의 번역과 방언 사용

사이토 하지메*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D.H.로렌스의 소설 「채털리부인의 사랑」(David Herbert Lawrence, *Lady Chatterley's Lover* [1928])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일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외설’이라는 단어를 상기할 것이다.

영국의 이 장편소설은 1928년에 출판되었는데 계급을 초월한 연애, 자유분방한 성의 묘사, 특히 성기를 나타내는 용어(예: fuck, cunt)의 대담한 사용이 문제시 되어, 검열을 통과한 한정판만이 출판될 수 있었다. 일본에서는 1950년에 소설가이자 비평가로 유명했던 이토 세이(伊藤整)가 무삭제판을 출판했다. 이토는 이 번역서 때문에 1951년부터 1957년까지 재판을 받게 되는데 결국 10만엔이라는 벌금을 물게 된다. 이 유명한 「<채털리부인의 사랑>재판(チャタレイ裁判)」은 지금도 외설성을 정의하는 논쟁에 항상 참고가 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토가 벌금을 낸 지 3년 밖에 지나지 않은 1960년에 영국에서는 완전판이 출판되었다. 이후 일본에서도 수많은 번역본이 나왔는데 본고에서 인용할 무토 히로시(武藤浩史)의 번역(2004년)은 큰 호평을 받았다. 이 고전작품의 수요는 여전하다고 한다.

한편, 이 <채털리부인의 사랑>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바로 방언의 사용이다. 이 소설은 탄광이 많던 노팅엄주(州)의 방언을 효과적으로 사

* 쓰쿠바대학교 교수

용하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하반신에 중상을 입고 성불구자가 된 클리퍼드 채털리경의 부인 콘스틴스(코니) 채털리는 성적 욕구불만에 싸여 있었다. 이 욕구 불만을 해소하고자 마이클리스라는 애인과 외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그녀의 앞에 노팅엄 광부의 아들인 올리버 멜러스가 나타난다. 멜러스는 원래 대장장이였지만 지금은 클리퍼드가의 사냥터지기를 맡고 있었다. 상류계급 여자와 노동자계급 남자. 그들은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해 있었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언어 차이가 현저한 부분의 한 예로 사냥터지기의 오두막 안에서 둘이 만나는 장면(제 8장)을 인용해 보겠다. 원문은 케임브리지판 전집을 저본(底本)으로 출판된 펑귄판(1994년)에서 인용한다. 일본어역은 이토(伊藤)역(1996년)과 무토(武藤)역(2004년)에서 적절히 인용하겠다.

《인용1》

<p>“Ah’m getting’ th’ coops ready for th’ young bods,” he said, in broad vernacular. She did not know what to say, and she felt weak. “I should like to sit down a bit,” she said. (p.88)</p>	<p>「雛を入れる籠を作っていたんでさあ」と彼はむきだしの方言で言った。 彼女は何と言っているかわからなかったが、自分は疲れていると思った。 「ちょっと休みたいの」と彼女が言った。 (이토(伊藤), 157p)</p> <p>“새끼꿩 넣을 둥우리를 만들고 있던 참이랑게” 하고 그는 노골적인 사투리로 말했다.</p> <p>그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지만 자신이 피로해 있음을 느꼈다.</p> <p>“좀 쉬고 싶어요”하고 그녀가 말했다.</p>
---	--

《인용1》에서 영어 원문의 첫 2줄을 보면 철자법이 참 독특하다. 이를 ‘보통 영어’로 고치면 “I’m getting the coops ready for the young birds.” 정도가 될 것이다. (이토는 이를 「雛を入れる籠を作っていたんでさあ(새끼꿩 넣을 둥우리를 만들고 있던 참이랑게)」로 번역했는데, 과연 이 번역이 ‘노골적인 방언’을 적절히 표현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것이다)

이처럼 멜러스의 노팅엄 방언은 익숙치 않은 철자법과 더불어 독자들에게 두 주인공의 입장이 다름을 호소한다. 물론 두 사람의 성애(性愛)가 그 입장 차이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지만.

방언 사용이 이 소설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논고는 이미 적지않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그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는 피하려 한다. 그보다 이 영문학 작품을 대학에서 강의할 때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사투리 사용의 중요성을 실감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언급해 보고자 한다.

자, 어떤 강사가 수업시간에 로렌스의 소설이 지닌 중요성이 획기적인 성애 표현뿐만 아니라 대담한 방언의 사용에도 있음을 가르치려 한다고 치자. 대부분의 강사는 먼저 텍스트에서 몇 부분을 발췌해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 최근 발표된 중요한 논문 중 하나인 무토 히로시(武藤浩史)의 「소설 <채털리부인의 사랑> 속의 목소리들-라디오, 사투리, 문헌학(1990)(「*チャタリー卿夫人の恋人、の中の声たち-ラジオ、方言、フィロロジー*」(1999年))」을 과제로 내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 전달형 강의로는 학생들 대부분이 강사와 무토의 주장을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학생들은 로렌스가 왜 굳이 방언을 사용했는지, 그 의미를 단순한 사실로써만 기억할 것이다. 이를 눈치챈 후, 나는 영문학에서 방언 사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강의를 디자인하기 시작했다. 간단히 소개하면, 텍스트 일부를 가지고 학생들 본인이 알고 있는 일본 방언으로 번역시킨 후 칠판에 소개하는 방법이다.

수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부분은, 숲으로 산책 나온 채털리경 부부 앞에 멜러스가 나타나고 채털리경이 자기 부인에게 이 사냥터지기를 소개하는(제5장), 즉 코니와 멜러스가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다.

《인용2》

<p>“But you’ve been here some time, haven’t you?” Connie said to him. “Eight months, Madam - your ladyship” he corrected himself calmly. “And do you like it?” She looked him in the eyes. His eyes</p>	<p>「でもここへ来てからだいふになるのでしょう」とコニーが彼に言った。 「八ヶ月になります、マダム……奥さま！」と彼は少しもあわてずに言葉を言い直した。 「気に入りましたか？」</p>
--	---

narrowed a little, with irony, perhaps with impudence.

“Why yes, thank you, your ladyship! I was reared here --”

He gave another slight bow, turned, put his hat on, and strode to take hold of the chair. His voice, on the last words, had fallen into the heavy broad drag of the dialect - perhaps also in mockery, because there had been no trace of dialect before. He might also be a gentleman. Anyhow he was a curious, quick, separate fellow, alone but sure of himself. (pp. 46-47)

彼女は彼の眼を見た。彼は少し眼を細めた。それは皮肉のためか傲慢のためだった。

「はあ、おかげさまで、奥さま！私はこの近くで育ったものですから……」

彼はもう一度頭を下げたから向き直り、帽子をかぶって、椅子に手をかけるために近寄っていった。彼の言葉は、終わりのほうは、重苦しい方言むき出しの調子になった……それはたぶんひとをからかうためだった。というのは、今までは少しも訛りがななかったのだから。彼はほとんど紳士と言ってもらえるくらいの態度を持っていた。とにかく彼は妙に悟りの早い、人を近づけぬ、淋しげな、それでいて自信ありげな人間だった。(伊藤、81~82p)

“하지만 여기 온 지 꽤 되지요?”하고 코니가 물었다.

“여덟 달 됩니다. 부인 … 마님!”하고 그는 조금도 허둥대지 않고 고쳐 말했다.

“마음에 드나요?”하고 그녀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눈을 조금 가늘게 떴다. 빈정거리는 혹은 거만한 태도였다.

“에 덕분에 마님! 저는 이 근처에서 자랐거든요”하고 그는 다 한 번 고개를 숙여 보이고 모자를 쓰고는 의자를 잡으려고 다가왔다. 그의 말은, 끝부분은, 목직한 사투리가 노골적인 어감이었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을 조롱하려는 말투였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조금도 사투리를 쓰지 않았으니까. 그는 거의 신사라 해도 좋을 만큼 태도가 좋았다. 아무튼 그는 묘하게 눈치가 빠르고, 사람을 가까이하지 않는, 쓸쓸한 듯한, 그러면서도 자신만만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먼저 위의 내용(《인용2》)을 설명한 후 다음과 같은 양케이트를 실시한다.

《인용3》

David Herbert Lawrence의 *Lady Chatterley's Lover* (1930)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밑줄 친 부분을 일본어 방언(본인이 ‘방언’이라고 생각하는 표현 혹은 본인과 친척이 사용하는 표현)으로 번역해 주세요.

《居心地はいいですか》

女が男の目を見つめた。男の目が、皮肉に、もしかしたら生意気に、少し細まった。

《ええ、はい、有難うございます、奥さま! I was reared here. --- 》

再度、軽くお辞儀をして、帽子をかぶり、大股で車椅子のところまで歩いて、それをつかんだ。最後の数語で男の声が強い方言に変わったのだった・・・

“지내기는 괜찮나요?”하고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 보았다. 그의 눈이 빈정거리듯, 어찌면 거만하게, 살짝 가늘어졌다.

“아, 예, 고맙습니다 마님! I was reared here. --- ”

그는 다시 한 번 가볍게 고개 숙여 절하고는, 모자를 쓰고, 성큼성큼 걸어와 휠체어를 잡았다. 마지막 몇 단어에서는 남자의 말투가 강한 사투리로 변했다....

갑작스런 앙케이트에 신이 난 학생들은 왈자지껄 떠들며 앙케이트를 작성한다. 작성이 끝나면 답변을 모아 칠판에 소개한다.

내가 근무하는 쓰쿠바(筑波)대학은 일본의 수도인 동경(東京)에서 북동쪽으로 약 6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대규모 대학이다. 동경과 그 주변의 수도권 출신 학생들도 많지만 일본 전역에서 학생들이 몰려든다. 따라서 일본 각지의 방언을 잘 아는 학생들이 서로 섞여 있다. 이렇게 학생들의 다양한 방언 지식을 모아서 수업참가자 전원이 공유하는 것이다.

《인용4》에 학생들이 작성한 앙케이트의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원문의 I was reared here을 학생들이 일본 각 지역의 방언으로 번역한 것이다.

《인용4》

	학생들의 답변	지역	비고
1	おれ、ここで生まれたっすけさあ。나(오레(オレ)), 여기서 태어났서라아.	니가타현 슈에츠지방 (新潟県中越地方)	할머니도 자기를 ‘오레(オレ)’라고 칭한다
2	こごで、育ちましたがら。여거서 자랐드래유.	미야기현(宮城県)	-

3	私はここで育ったんだぞー。 나는 여기서 자랐지유.	야마가타현(山形県)	조부모가 야마가타에 사는데 가끔 어미에 ‘즈(ず)’를 붙였던 것 같다
4	おらはここにに住んでいたん だべ。나(오라(おら))는 여서 살구 있었구먼유.	이바라키현 히가시 이바라키군(茨城県 東茨城郡)	자라다(育つ)보다 살다(住む) 는 표현을 더 많이 쓴다
5	ここで育ったんさ～。 여기서 자랐사～.	군마현(群馬)	어미에 ‘～나사(んさ)’를 자주 붙인다
6	おれはここで育ったもんだ べ。나(오레(オレ))는 여기서 자랐습니더.	가나가와현 자마시 (神奈川県座間市)	어미에 ‘～베(～べ)’를 붙이는 건 가나가와현(神奈川県) 중앙 의 쇼난(湘南)지방 특유의 어투 같다. 나는 자마(座間)사투리라 고 부르는데, 아쓰기(厚木)사투 리나 후지사와(藤沢)사투리라 고도 한다
7	おらは、ここで生きかえりま したちゃー。나(오라(おら)) 는, 여기서 태어났슈.	도야마현(富山県)	-
8	うちは(どえらい昔から)ここ に住んどりゃあすて。 내(우치(うち))는 (무지 옛나 날부터)여기에 살고 있소.	긴키현 가니시(岐阜 県可児市)	탄광이 있었다
9	私はここで生まれたもんやさ かいに。나는 여기서 태어난 거 아니겠슈.	교토부(京都府)	-
10	私が生まれたんここやけん。 내가 태어난 저이 여기라니께.	가가와현(香川県)	-
11	私はここで育ったけえ。 나는 여기서 자랐지라우.	히로시마현(広島県)	-
12	僕はここで育ったんよ。 나(보쿠(僕))는 여기서 자랐 더랑께.	시마네현(島根県)	실제로 이렇게 쓴다
13	私はここで育ったけん。 나는 여기서 자랐땅께.	큐슈(九州)?	쓰쿠바대학에서 사귄 친구가 이런 표현을 쓴다
14	私、ここで生まれたっちゃ わー。 나, 여기서 태어났어라잉.	미야기현(宮崎県)	-
15	おいはここで生まれたっちゃ けんな。나(오이(おい))가 여 기서 태어난거 아닙니께.	나가사키현(長崎県)	아버지가 쓸 법한 표현입니다

《인용4》를 보면 알겠지만 일본 방언의 특징은 1인칭의 종류가 많다는 것이다(오레(オレ)、와타시(私)、오라(おら)、우치(うち)、오이(おい)). 또 다른 특징은 어미에 또다시 어미를 붙일 수 있는데 이 또한 종류가 많다는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로 통일된 일본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다양한 방언이 존재할 뿐이다. 이 기본적인 사실을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들여 찬찬히 확인한다. 그리고 나서《인용1》의 밑줄 친 부분 “Ah’m getting’ th’ coops ready for th’ young bods.”를 다시 한번 읽어 본다. 그러면 처음에는 단지 철자도 이상한 읽기 힘든 영어로만 여겨지던 이 표현이 실은 본인들이 실생활에서 몸소 체험하고 있는 방언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기 시작한다. 영국에도 사투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냥 머리로만 외우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알고 있는 일본어 방언에 해당하는 영국 방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수업 마지막에는 사회계급과 지역에 따라 영국 방언에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혹은 무토(武藤)의 논문을 읽히기도 한다.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 학생들이 본인의 방언지식과 영국의 방언을 중첩시키면서 계급간·지역간 언어사용의 차이와 유사성에 대해 나름 생각해 보기 시작한다. 즉, 주체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한편, 가장 최근에 출판된 무토 히로시(武藤浩史)의 번역서는 “I was reared here.”를 「わたしはここで育ったもんですけん(나는 여기서 자란 거랑께)」(武藤, 87p)으로 번역하고 있다. 《인용4》의 13번에 가장 유사한 번역인데 이에 대해 무토 자신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인용5》

작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영국 중부방언을 일본어로 번역할 때는, 소설의 배경이 되는 노팅엄주와 마찬가지로 탄광과 연이 깊은 규슈(九州)지방 방언을 참조했다. 이스키 히로유키(五木寛之)씨의 「청춘의 문(五木寛之)」 등을 참조하면서 규슈지방에 있을 법한 방언을 만들어 냈다.(武藤, p.615)

결론을 말하겠다.

양케이트는 학생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처음에는 본인들이 사용하는 혹은

알고 있는 방언을 창피하게 여기더니 앙케이트를 통해 수집한 다양한 방언표현을 칠판에 소개하자 다른 학생이 모르는 방언을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칠판에 방언표현을 소개하는 동안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그 좋은 증거가 될 것이다.

다양한 금기를 깬 로렌스의 소설을 단지 딱딱한 '고전'으로 학생에게 강의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더더구나 일본어 번역서의 오역을 찾아내 바른 일본어와 바른 영어의 존재를 강조하는 것은 로렌스의 의지에 반하는 일일 것이다. 로렌스의 작품과 그 번역서를 사용해 학생들에게 영어의 다양성과 일본어의 다양성을 느끼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그것은 '표준어'; 혹은 '모국어'라는 경직된 틀 속에 갇히기 쉬운 우리의 정신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로렌스가 45년간의 생애에 걸쳐 호소했던 것이다.

참고문헌

- 伊藤整訳・伊藤礼補訳 『チャタレイ夫人の恋人』 新潮社、1996年.
武藤浩史訳 『チャタレイ夫人の恋人』 筑摩書房、2004年.
武藤浩史 「『チャタレイ夫人の恋人』の中の声たち—ラジオ、方言、フィロロジー」、荒木正純・倉持三郎・立石弘道編、『D.H.ロレンスと新理論』 国書刊行会、1999年、pp.235-251.
D. H. Lawrence, *Lady Chatterley's Lover*, Penguin Books, 1994.

『チャタレイ夫人の恋人』の翻訳と方言使用について

齋藤一*

私は、日本以外のアジア諸地域ではどのような扱いになっているのか把握していないのだが、日本国内でD・H・ロレンス¹『チャタレイ夫人の恋人』(David Herbert Lawrence, *Lady Chatterley's Lover*[1928])といえ、おそらく多くの人は「猥褻」という言葉を想起す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イギリスの長編小説は1928年に出版されたが、階級を超えた恋愛、奔放な性表現、特に性器を表す言葉(例：fuck, cunt)の確信犯的な使用によって問題となり、検閲を受けた版のみが出版された。日本では、1950年に小説家・批評家として有名だった伊藤整が全訳を出版したが、1951年から1957年にかけて裁判となり、伊藤は10万円の罰金を支払うことになった。これはいわゆる「チャタレイ裁判」として有名であり、猥褻性の定義をめぐる議論の時には常に参照される。なお、皮肉なことに、伊藤が罰金を支払ったわずか3年後の1960年にはイギリスで完全版が出版されている。その後は日本でも数多くの翻訳が出版されており、本発表でも取り上げる武藤浩史の翻訳(2004年)は好評を博した。今でもこの古典的作品には需要があるようだ。

ただし、この小説にはもう一つの重要なポイントがある。それは方言の使用である。この小説は、炭鉱が多かったノッティンガム地方の方言を効果的に使っていることでも有名なのである。

第一次世界大戦に従軍して下半身に重傷を負い、性的不能になったクリ

* 筑波大学 教授

フォード・チャタレーの妻であるコンスタンス(コニー)・チャタレーは性的に不満を抱えている。そこでマイケルズといった愛人との不倫を繰り返すのだが、その彼女の目の前に現れたのが、ノッティンガムの炭鉱夫の息子にして元鍛冶職人であったが、現在はクリフォード家の狩番(gamekeeper)であるオリヴァー・メラーズである。上流階級の女性と労働者階級の男性。彼らは異なる世界に住み、異なる言葉を使う。

この二人の言葉の違いが顕著な部分の一例として、彼らが狩番小屋の中で出会う場面(第8章)から引用する。なお、以下の《引用》において、ロレンスの原文はケンブリッジ版全集を底本としたPenguin版(1994年)を使用する。訳文は伊藤訳(1996年)と武藤訳(2004年)を適宜使用する。

《引用1》

<p>“Ah’m getting’ th’ coops ready for th’ young bods,” he said, in broad vernacular. She did not know what to say, and she felt weak. “I should like to sit down a bit,” she said. (p.88)</p>	<p>「雛を入れる籠を作っていたんでさあ」と彼はむきだしの方言で言った。彼女は何と言っていいかわからなかったが、自分は疲れていると思った。「ちょっと休みたいの」と彼女が言った。(伊藤、157頁)</p>
---	---

左コラム1~2行目の独特なスペリングに注目していただきたい。これをいわゆる「普通の英語」に直すと、“I’m getting the coops ready for the young birds.”となるだろう。(ちなみに伊藤は「雛を入れる籠を作っていたんでさあ」と訳しているが、この訳文が「むき出しの方言」を適切に表現し得ているかどうかは判断が分かれるであろう。)

このように、メラーズのノッティンガム方言は、その見慣れぬスペリングも相まって、二人の立場の違いを読者にアピールする。もちろん、二人の性愛がその違いを乗り越える原動力になるのではある。

この小説における方言使用の重要性についてはすでに少なからぬ論考があるが、本発表ではそれらについて直接議論することはしない。そうではなくて、この英文学作品を大学で講義する際に、一体どのようにすれば方言使用の重要性

を学生に実感させるかという問題について触れたい。

例えば、私のような教員が、ロレンスという作家はその画期的な性愛表現のみならず大胆な方言使用においても重要であると講義するでしょう。私はテキストから本発表で引用しているような箇所を解説するだろう。そして、最近の重要な論考である武藤浩史の論文、例えば「¹チャタリー卿夫人の恋人、の中の声たち——ラジオ、方言、フィロロジー」(1999年)を課題とすることだろう。ところが、このような知識伝達型の講義では、学生の多くは私や武藤の議論を唯々諾々と受け取る可能性が高い。彼ら彼女らは、ロレンスが方言をあえて使ったということの意味を単に事実として覚えるだけなのである。私はこのことに気がついてから、英文学における方言使用の重要性を、学生が主体的に理解できるような方法を試みてきた。ごく簡単に述べると、テキストの一部分を、学生に自分が使っているか知っている方言を使って翻訳させ、それをまとめ、紹介しようというものだ。

私が授業で使っているのは、第5章、森の中へ散策に出るチャタレイ夫妻の前にメラーズが現れ、夫が妻にこの森番を紹介するという、コニーとメラーズが初めて出会う場面である。

《引用2》

<p>“But you’ve been here some time, haven’t you?” Connie said to him. “Eight months, Madam - your ladyship” he corrected himself calmly. “And do you like it?” She looked him in the eyes. His eyes narrowed a little, with irony, perhaps with impudence. “Why yes, thank you, your ladyship! I was reared here --” He gave another slight bow, turned, put his hat on, and strode to take hold of the chair. His voice, on the last words, had fallen into the heavy broad drag of the dialect - perhaps also in mockery, because</p>	<p>「でもここへ来てからだいぶになるでしょう」とコニーが彼に言った。 「八ヶ月になります、マダム……奥さま！」と彼は少しもあわてずに言葉を言い直した。 「気に入りましたか？」 彼女は彼の眼を見た。彼は少し眼を細めた。それは皮肉のためか傲慢のためだった。 「はあ、おかげさまで、奥さま！私はこの近くで育ったものですから……」 彼はもう一度頭を下げてから向き直り、帽子をかぶって、椅子に手をかけるために近寄っていった。彼の言葉は、終わりのほうは、重苦しい方言むき出しの調子になった…… ……そ</p>
--	---

<p>there had been no trace of dialect before. He might also be a gentleman. Anyhow he was a curious, quick, separate fellow, alone but sure of himself. (pp. 46-47)</p>	<p>れはたぶんひとをからかうためだった。というのは、今までは少しも訛りがなあかったのだから。彼はほとんど紳士と言ってもいいくらいの態度を持していた。とにかく彼は妙に悟りの早い、人を近づけぬ、淋しげな、それでいて自信ありげな人間だった。(伊藤、81~82頁)</p>
---	---

私はこの引用を解説したのち、次のようなアンケートを行っている。

《引用3》

<p>David Herbert Lawrence, <i>LadyChatterley's Lover</i>(1930)の以下の下線部を方言(自分が「方言」だと思う言語、自分や親族が使っていた言葉)を使って訳しなさい。</p> <p>《居心地はいいですか》</p> <p>女が男の目を見つめた。男の目が、皮肉に、もしかしたら生意気に、少し細まった。</p> <p>《ええ、はい、有難うございます、奥さま！ <u>I was reared here.</u> --- 》</p> <p>再度、軽くお辞儀をして、帽子をかぶり、大股で車椅子のところまで歩いて、それをつかんだ。最後の数語で男の声が強い方言に変わったのだった・・・</p>

意表を突かれた学生はお互い賑やかに談笑しながら楽しそうにこのアンケートに答える。私はそれを集め、黒板を使ってそれを紹介するのである。

私が勤務する筑波大学は、日本の首都である東京の東北方向約60キロの場所にある、大規模な大学である。東京を中心とする首都圏出身の学生も多いが、全国各地から学生が集まる大学である。彼ら彼女らは、日本の各地域の方言を知っている。その知識を披露してもらい、私を含めた授業参加者全員で共有するのだ。

以下、彼ら彼女らの答えのごく一部を紹介する。

《引用4》

	学生の回答	地域	コメント
1	おれ、ここで生まれたっすけさあ。	新潟県中越地方	おばあちゃんも「オレ」という

2	こごで、育ちましたがら。	宮城県	祖父母が山形に住んでますが、たまに語尾に「ず」をつけていたような気がします
3	私はここで育ったんだずー。	山形県	-
4	おらはここに住んでいたんだべ。	茨城県東茨城郡	育つよりも住むの方がよく使う
5	ここで育ったんさ〜。	群馬	語尾にんさ〜がつくことがよくある
6	おれはここで育ったもんだべ。	神奈川県座間市	語尾に「〜べ」とか言うのは神奈川の県央、湘南地方の独特らしい。私は座間弁っていうけど、厚木弁とか藤沢弁とか言ったりもするらしい
7	おらは、ここで生きかえりましたちゃー。	富山県	-
8	うちは(どえらい昔から)ここに住んどりゃあすて。	岐阜県可児市	炭鉱があった
9	私はここで生まれたもんやさかいに。	京都府	-
10	私が生まれたんここやけん。	香川県	-
11	私はここで育ったけん。	広島県	-
12	僕はここで育ったんよ。	島根県	実際にこんなことばで話しているため
13	私はここで育ったけん。	九州?	筑波にきてできた友達がよく使っているから
14	私、ここで生まれたっちゃわー。	宮崎県	-
15	おいはここで生まれたっちゃけんな。	長崎県	お父さんが言いそうなことばです

この表を一読するだけで分かることは、日本語の方言には数多くの一人称があること(オレ、私、おら、うち、おい)、そして数多くの語尾の語尾があるということだ。当然のことだが、一つの日本語などというものは存在しない。あるのは多様な方言だ。この基本的な事実を、時間をかけて学生とともに確認する。その上で《引用1》の下線部、“Ah’m getting’ th’ coops ready for th’ young bods.”を読み返す。すると、学生は、当初は単に読みづらいスペリングの異様な英語が、自分たちが体験しているところの方言であるということを実感し始め

る。つまり、イギリスには方言があるという知識を単に覚えることにとどまらず、まさに自分たちが知っている日本語の方言に対応するものがイギリスにも存在するというを理解し始めるのである。このあと、私は、イギリスにおける階級や地域による方言の違いやその意味を語り、あるいは武藤論文を読ませる。すると、学生はまさに自分の方言知識をイギリスの方言に重ね合わせ、その差異と類似性を自分なりに考え始める。いわば主体的に理解し始めるのだ。

なお、一番新しい武藤浩史の翻訳では、“I was reared here.”は「わたしはここで育ったもんですけん」(武藤、87頁)となっている。これは《引用4》の13番によく似ているが、武藤は次のように述べている。

《引用5》

作中きわめて重要な役割を演じる英中部方言の訳出に際しては、¹「チャタレー、同様炭坑に縁が深い九州地方の方言らしきものを、五木寛之氏の『青春の門』などを参照して、作りだした。今回も翻訳に際して多くの人びとに助けていただいた。その方言訳では、同僚にして親友の横山千晶さんに大変お世話になった。(武藤、615頁)

結論を述べる。

このアンケートは学生に好評であった。最初は自分の使っている、あるいは自分が知っている方言が恥ずかしいものだという固定観念に囚われていた学生たちも、私が様々な方言による翻訳を黒板で紹介していくうちに、他の学生が知らない方言を知っている自分を肯定するようになる。黒板で学生のアンケート用紙を紹介していくあいだ、笑いが絶えなかったのがその証拠であろう。

様々なタブーを破ったロレンスの小説を堅苦しい「古典」として学生に講義してもあまり意味がない。まして、ロレンス小説の翻訳の誤訳をあげつらって正しい日本語と正しい英語の存在を強調することは、彼の意志に背くことであろう。ロレンスの小説とその翻訳を使いながら、英語の多様性と日本語の多様性を学生に感じさせること。それは「標準語」や「母国語」という硬直しがちな枠に囚われがちな私たちの精神を解放することにつながるだろう。そしてそれこそが、ロレンスが45年の生涯をかけて訴え続けたことなのである。

参考文献

伊藤整訳・伊藤礼補訳『チャタレイ夫人の恋人』新潮社、1996年

武藤浩史訳『チャタレイ夫人の恋人』筑摩書房、2004年

武藤浩史「『チャタレイ卿夫人の恋人』の中の声たち—ラジオ、方言、フィロロジー」、荒木正純・倉持三郎・立石弘道編、『D.H.ロレンスと新理論』国書刊行会、1999年、pp.235-251.

D. H. Lawrence, *LadyChatterley's Lover*, PenguinBooks, 1994.